

GWANGJU

FOOTBALL CLUB

M O N T H L Y M A G A Z I N E

JUNE 2016 No.4
www.gwangjufc.com



PREVIEW

고비의 6월, 진정한 시험대 선다

GWANGJU FC STAR

이찬동, 광주의 허리를 지키는 파이터

COMEBACK

부상 선수 대거 복귀, 전력도 업그레이드

6월 4일(토)
19:00



vs 전북 현대

6월 19일(일)
19:00



vs 성남FC

6월 26일(일)
19:00



vs 전북 현대

광주FC 5월 RECORDS

광주FC TOP SCORERS



정조국

7득점

선수명	득점
김민혁	1
김정현 송승민	
조주영 홍준호	

2016년 5월 K LEAGUE CLASSIC

4
경기

승 3
무 0
패 1

3득점

2실점

05.01 0-2 패

05.05 1-0 승

05.22

1-0 승

05.28

1-0 승

광주FC TOP ASSISTERS

선수명	도움
조주영	2
송승민	1
이요뜸 이종민	1



김민혁

4도움

2016년 광주FC 시즌 기록

	득점	도움	실점	슈팅	코너킥	파울	경고	퇴장
광주FC	1.10	0.82	1.18	8.91	4.00	16.64	2.55	0회
클래식 평균	1.39	0.94	1.39	11.89	4.69	13.25	2.04	5회



고비의 6월 진정한 시험대에 선다

광주FC가 착실하게 승점을 쌓으며 중위권 순위인 6위를 유지하고 있다. 성공적인 초반 시즌을 보낸 광주는 이제 이 순위를 지키면서 상위권에 올라갈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런데 6월 일정이 만만치 않다. 광주가 6월에 상대할 팀들은 현재 K리그 클래식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기 때문이다.

광주는 다른 팀과 달리 A매치 휴식기인 6월 4일에 경기를 치른다. 현재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북 현대와의 원정경기로 조금 이른 6월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제주 유나이티드전을 치르고 FC서울, 성남FC를 차례로 만난 다음 다시 전북과 리턴 매치를 벌인다. 그리고 6월 29일에는 수원 삼성과의 원정경기로 6월 일정을 마친다.

광주에 있어 6월 일정은 여러모로 불리하다. 우선 전북과의 6월 4일 경기는 5월 14일에 치러지려 했으나 전북의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 관계로 연기됐다. 그 주에 경기를 쉬며 한숨을 돌렸지만, 6월에 경쟁팀보다 1경기를 더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우선 전북과의 경기가 중요하다. 광주는 지난해까지 전북과 7번 맞붙어 2무 5패의 열세를 보였다. 게다가 전북은 지난해 우승팀이고 올 시즌도 2위다. 광주로서는 쉽지 않은 상대다. 하지만 골리앗 같은 상대를 패기와 투지 그리고 광주의 강점인 조직력으로 쓰러뜨린다면 기세는 더욱 오를 수 있다. 물오른 정조국의 득점포와 김민혁의 경기 운영에 기대를 걸게 된다.

전북전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그 기세를 이어 제주, 서울, 성남을 상대로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 이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승점을 얻는다면 현재의 중위권을 넘어서 상위권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위 스포팅인 그 룩A 진출 가능성도 키울 수 있다. 클래식 잔류를 넘어 더 나은 성적을 꿈꾸는 광주가 바라는 일이기도 하다.

분명 6월은 광주에 있어 힘든 시기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면 광주에 최고의 한 달이 될 수 있다.

2016 K리그 클래식 중간 순위

순위	팀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득실차
1	전북	25	7	4	0	21	13	8
2	서울	23	7	2	2	22	12	10
3	성남	21	6	3	3	21	14	7
4	울산	18	5	3	4	13	13	0
5	제주	17	5	2	4	22	15	7
6	광주	17	5	2	4	12	13	-1
7	상주	14	4	2	6	22	25	-3
8	포항	14	3	5	4	13	13	0
9	수원	13	2	7	3	18	21	-3
10	수원FC	11	2	5	5	10	18	-8
11	전남	8	1	5	6	11	18	-7
12	인천	7	1	4	7	9	19	-10

6월 광주FC 경기 일정

6월 4일	19:00	vs 전북 현대	홈
6월 11일	19:00	vs 제주 유나이티드	원정
6월 15일	19:30	vs FC서울	원정
6월 19일	16:00	vs 성남FC	홈
6월 26일	19:00	vs 전북 현대	홈
6월 29일	19:30	vs 수원 삼성	원정

부상 선수 대거 복귀

광주FC 전력도 업그레이드

광주FC가 상위권팀들을 차례로 만나는 쉽지 않은 6월 일정을 앞두고 있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 게다가 6월 일정을 앞두고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전력을 더욱 끌어올리게 됐다.

가장 반가운 이는 중원의 사령탑 **여름**이다. 여름은 이찬동과 함께 시즌 초반부터 광주 중원을 책임졌다. 공격, 수비의 밸런스를 맞추며 물 흐르듯 매끄러운 경기 운영을 펼쳤다. 그러나 여름이 4월 13일 FC서울전 이후 오른쪽 발목을 다쳐 전력에서 이탈했다. 광주는 다행히 여름의 공백을 최소화했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부담을 느꼈다. 그리고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른 5월 22일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여름이 복귀했고, 광주는 다시 중원에 큰 힘을 얻었다. 여름이 돌아온 만큼 상대를 제압하고,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미드필드 플레이도 가능해졌다.

시즌 초반 광주의 수비를 책임졌던 **김영빈**의 복귀도 반갑다. 안정된 수비는 승리의 첫 걸음이다. 왼쪽 발목을 다쳐 4월 17일 전남 드래곤즈전 이후 결장했다. 그러나 몸을 완전히 회복한 만큼 강팀들을 상대로 탄탄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꼬리뼈 골절로 한참 동안 전력에서 이탈했던 베테랑 미드필더 **조용태**의 복귀는 정조국에게 쏠린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조용태의 날카로운 패스, 크로스 등 공격 지원은 정조국에게 더 많은 득점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신인 수비수로 왼쪽 햄스트링 근육을 다쳤던 **이민기**도 출격 준비를 마쳤다. 왼쪽 측면을 활발히 움직이는 선수이기에 광주의 전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여름

No.7 MF



통산	96경기	3득점	7도움
2016	6경기	0득점	0도움

이민기

No.12 DF



통산	0경기	0득점	0도움
2016	0경기	0득점	0도움

조용태

No.22 MF



통산	123경기	14득점	8도움
2016	0경기	0득점	0도움

김영빈

No.3 DF













통산	62경기	3득점	1도움
2016	6경기	0득점	0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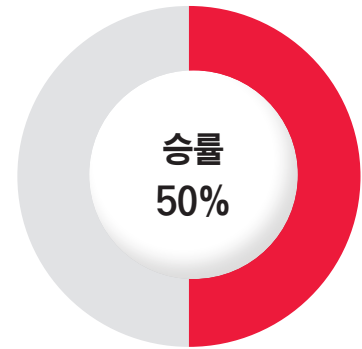
4승 2무 4패

절반의 성공 거둔 광주FC

K리그 클래식이 각 팀 별로 1번씩 맞대결을 벌이며 한 바퀴를 돌았다. 광주FC는 1경기가 6월로 연기되면서 1경기가 적은 10경기를 소화했다. 그리고 11라운드까지 4승 2무 4패라는 무난한 성적을 기록하며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

광주FC 10경기 전적

03.12		3-3	무
03.19		1-0	승
04.03		1-2	패
04.09		0-2	패
04.13		1-2	패
04.17		2-1	승
04.24		1-1	무
05.01		0-1	패
05.05		1-0	승
05.22		1-0	승



4승 2무 4패

11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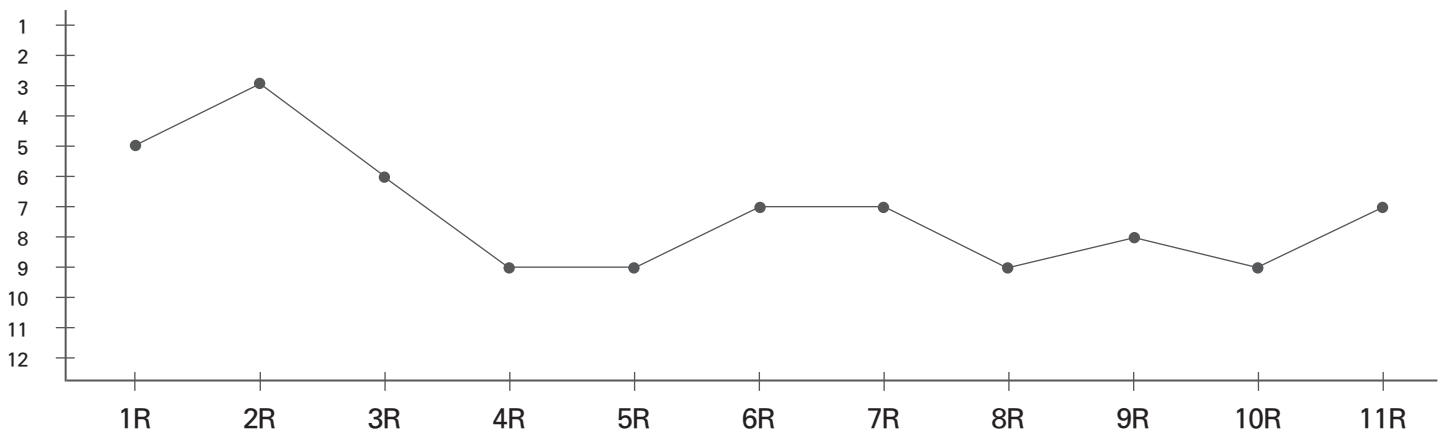
13실점



광주는 승리를 거둬야 할 팀은 확실히 잡고 갔다. 그것이 절반의 성공이 된 비결이다. 앞으로 있을 경기들에서도 승리를 따내야 할 팀에는 반드시 승리해 승점 3점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또한 첫 승의 제물이었던 제주처럼 강팀이라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연패도 조심해야 한다. 시즌 3번째 경기였던 수원FC전을 시작으로 광주는 3연패를 당했다. 물론 울산, 서울은 광주보다 전력이 좋은 팀으로 평가 받는다. 그러나 승리의 기운을 이어가지 못하고 패배 숫자를 쌓는다면 팀 분위기는 침체에 빠진다. 이는 광주의 올 시즌 목표 달성에 크나큰 장애물이 된다.

광주FC 라운드별 순위 추이



광주는 초반 3연패로 순위가 9위까지 내려갔다. 이 여파는 11라운드를 마칠 때까지 이어졌다. 이후 승리를 추가했지만 7위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못했다. 다만 상위권과의 승점 차가 그리 크지 않은 건 다행스러운 점이라 하겠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8위 이하 하위권의 추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광주는 절반의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분발해서 순위를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광주FC의 허리를 지키는 파이터

광주FC의 축구는 선이 얇다. 수비진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경기를 풀어간다. 볼 점유율을 차츰 늘리면서 상대를 옥죄며 득점을 만들어낸다. 당연히 광주 선수들 대부분은 발 기술과 뛰어난 패스 능력을 갖추고 있다. 어떤 팀을 상대로도 광주의 철학은 굳건하다. 팬들이 입을 모아 "광주는 참 매력적인 클럽"이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대로 거친 축구, 즉 파이터 기질의 선수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투쟁심, 헌신과는 다른 이야기다. 광주는 한 발 더 뛰는 축구를 하는데 선수들에게 투쟁심, 헌신의 자세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찬동은 그런 광주에게 단비 같은 존재다. 1993년생으로 올해 23세의 어린 나이지만 투쟁심만큼은 K리그 내에서도 손에 꼽힌다. 광주가 선이 얇고 아름다운 축구를 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살림꾼 이찬동의 공이 크다. 묵묵히 굵은일을 하면서 팀의 전진을 돕는다. 스스로 "상대가 누구든 나는 다 부딪히고 거칠게 싸운다"며 자신의 축구 스타일을 설명한다. '거칠게'라는 표현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꺼림직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몸싸움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축구에서, 팀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사실 이찬동은 시즌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다. 개인, 팀 모두 우려가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부상으로 3개월 가량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고 팀으로는 지난 2시즌 클래식 승격과 잔류를 함께했던 핵심 자원들이 대거 이탈한 탓이다. "아직도 몸 상태가 100% 올라오지 않았다. 3개월을 쉬어서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몸이 더 빨리 올라와서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이찬동은 "솔직히 올해 팀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형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큰일 났다는 생각까지 했다"며 근심 가득했던 속내도 함께 털어냈다.

하지만 이찬동의 걱정은 시즌 시작과 동시에 봄바람을 타고 사라졌다.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과 신인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쳐준 덕분이다. "동계훈련 때 (정)조국 형과 (김)민혁이가 합류했다. 둘 다 정말 잘해주고 있다. 수비 쪽에서는 (홍)준호, (박)동진 등이 좋은 활약을 해준다. 작년에 비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전력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빠진 형들의 역할을 각자가 다 잘해주고 있는 것 같다"며 웃어 보였다. 그러면서 이찬동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남기일 감독 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독님께서 선수들을 편하게 해주신다. 실수하고 누구 때문에 골을 먹어도 탓하는 법이 없으시다. 실수해도 다시 해봐라 괜찮다는 격려를 많이 해주신다"며 "저도 모두가 부족해서 패한 것이다. 핑계는 절대 없다.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라고 용기를 심어주신다. 이는 지금의 성적을 기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드러냈다.

어느덧 K리그는 한 바퀴를 돌았다. 광주는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인해 연기된 전북 현대전을 제외하면 모든 팀들과 한 번 이상 맞붙었다. 팀간 전력 분석이 끝났고 선수들도 몸으로 부딪히며 각자의 올 시즌 몸 상태와 경기력을 체크했다. K리그 클래식에서 2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이찬동은 "1년 차 때 승격을 했다. 작년에는 승격을 함께 이뤄낸 형들과 그대로 올라와서 서로 잘 맞다 보니 편안했다. 그러나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올 시즌에도 조직력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올림픽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었다. 이찬동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의 핵심 자원이다. 살림꾼, 파이터 기질이 또래 중 단연 으뜸이다.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잠시 떠났던 시간을 제외하고 줄곧 신태용호의 부름을 받았다. 이찬동은 지난 5월 23일 발표된 4개국 초청 축구 친선 대회 명단에 홍준호, 박동진과 함께 이름을 올리며 최종 명단 승선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대표팀 승선은 항상 기본 좋은 일이다"면서 "4개국 대회서 잘해야 리우데자네이루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죽기살기가 아닌 죽기로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외부에서 볼 때 이찬동의 올림픽행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올림픽대표팀 선수 대부분이 소속팀에서 꾸준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찬동은 광주 핵심 자원으로 활약하며 경기 감각을 유지 중이다. 올림픽대표팀이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도 이찬동의 발탁에 무게추가 쏠리는 이유다. 그러나 이찬동은 "올림픽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못 뛰는 것이 있다. 못 뛰는 선수들에 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유리한 위치는 맞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몸 상태를 더 올려야 된다. 발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도 "브라질은 가본 적이 없다. 가게 되면 동료들과 함께 모든 힘을 짜내 최선을 다하겠다. 선수들만의 정신력, 투지, 헌신을 갖고 간절하고 절실하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싶다. 밟고 싶은 무대다"는 솔직한 열망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이찬동은 부쩍 더워진 날씨에도 계속해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는 홈팬들에게 감사의 말과 함께 올 시즌 목표를 당차게 남겼다. "다른 팀들에 비해 팬들이 많지는 않지만 열정적으로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 뛰면서 감동을 받고 있다. 정말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힘이 난다. 더 잘 할테니 계속해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감사하다"면서 "잔류는 무조건 해야 한다. 시즌 전에는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6위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지금은 중상위권까지 노리고 싶다"



40
LEE CHAN DONG
이찬동

2015년 시즌 기록

 경기	11	 경고	3
 득점	0	 퇴장	0
 도움	0		
 파울	22		
 피파울	15		
 슈팅	6		
 유효슈팅	1		

이찬동의 포지션



생년월일	1993.01.10
신장/체중	183cm/83kg
포지션	미드필더
출신교	인천대
클럽경력	광주(2014~현재)



감독

남기일



수석코치

이정효



코치

마철준



골키퍼 코치

기우성



피지컬 코치

길레미



주치의

이준영

1 GK 최봉진
1992.04.06 193cm/83kg

2 DF 정호정

1988.09.01 180cm/76kg



3 DF 김영빈

1991.09.20 184cm/79kg



4 DF 웰링톤

1990.02.21 194cm/8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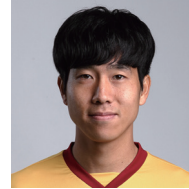
5 DF 박동진

1994.12.10 185cm/75kg



6 DF 오도현

1994.12.06 188cm/82kg



7 MF 여름

1989.06.02 175cm/69kg



8 DF 이도움

1989.09.02 177cm/70kg



9 FW 정조국

1984.04.23 186cm/78kg



10 FW 파비오

1986.10.04 171cm/66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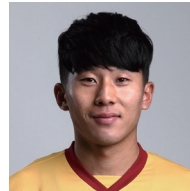
11 MF 조성준

1990.11.27 176cm/67kg



12 DF 이민기

1993.05.19 175cm/71kg



13 MF 주현우

1990.09.12 174cm/71kg



14 DF 김진환

1989.03.01 186cm/78kg



16 MF 송승민

1992.01.11 187cm/77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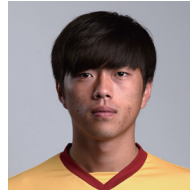
17 DF 이종민

1983.09.01 175cm/68kg



18 DF 정동운

1994.04.03 175cm/7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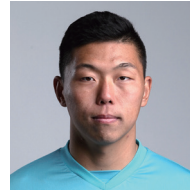
19 MF 박선홍

1993.11.05 176cm/76kg



20 MF 김정현

1993.06.01 185cm/80kg



21 GK 윤보상

1993.09.09 184cm/84kg



22 MF 조용태

1986.03.31 180cm/69kg



23 MF 김민혁

1992.08.16 183cm/71kg



24 FW 조주영

1994.02.04 186cm/76kg



25 DF 홍준호

1993.10.11 192cm/85kg



26 FW 김성현

1990.07.01 175cm / 68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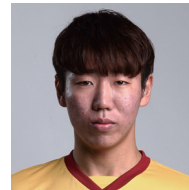
27 MF 김진수

1995.02.28 182cm/77kg



28 MF 김익신

1992.11.26 181cm/7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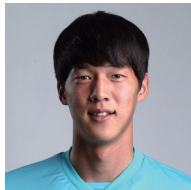
29 FW 김시우

1997.06.26 180cm/71kg



30 FW 심광욱

1994.01.03 175cm/66kg



31 GK 황인재

1994.04.22 188cm/80kg



32 FW 김상욱

1994.01.04 178cm/75kg



33 MF 와다

1994.10.30 172cm/60kg



40 MF 이찬동

1993.01.10 183cm / 80kg

광주FC SNS 채널



@GWANGJU_FC



www.facebook.com/gwangjufc



2016시즌 홈경기 일정

NEXT

6월 19일(일)
19:00

vs 성남FC

6월 26일(일)
19:00

vs 전북 현대

7월 3일(일)
19:00

vs 포항 스틸러스

7월 9일(토)
19:00

vs 인천 유나이티드